길경의 화색에 따른 생육특성

박석근*, 지형준[1], 채영암[2]

신구전문대학 원예과, [1]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2]서울대학교 농학과

길경은 초롱꽃과(桔涇科, Campanulaceae)인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 A.DC)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길경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산야에 자생되어 오고 있으며 거담제(祛痰劑) 및 배농약 등으로 쓰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용하는 산채이기도 하며, 꽃은 절화(切花)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지금은 산야에서 자생하는 것으로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전국 각지에서 재배, 생산되고 있으며 약용작물로 생산된 것은 국내 수요 뿐만 아니라 수출 생약으로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길경의 단위수량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수출증대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우량품종의 육성 및 다수확 재배법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화색에 따른 생육 특성 차이를 보고자 수행하였다.

백색꽃이 피는 길경이 보라색꽃이 피는 길경에 비해 줄기수, 꼬투리수, 초장, 종자수량과 같은 지상부 생육과 생근중, 건근중, 근장 및 근직경 등과 같은 형질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또한, 사포닌 함량이나 정유 함량에도 차이가 없었다.